

## 제6장 숲과 인간

### ■ 교재요약

- 숲이 인간에게 목재 등 다양한 물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줌으로써 인간의 철학적 사색과 문화 예술적 상상력을 고취시키며, 자연관찰과의 접촉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게 해 준다.
- 숲은 질병의 치유제, 정서순화의 장소, 자아실현의 욕구를 키워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통문화에서 숲은 생활의 원동력이었으며 고려청자, 조선백자, 팔만대장경, 천마총의 장니 등 문화유산에 나무와 숲의 숨은 공로가 숨어져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다. 소나무와 참나무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 우리 조상들은 울퉁불퉁한 지형체계와 풍수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 지형에 적합한 마을숲을 만들었고 마을숲은 미기상 완화,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 유실 방지, 공동체 문화 공간으로서 중요하다. 마을숲은 도시 확산과 이농 인구 증가로 마을이 감소하여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다. 바람길과 물길을 잘 다스린 조상들의 지혜가 배어 있는 마을숲의 전통문화를 아파트숲, 도시숲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연습문제

1. 다음 중 숲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숲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공급하는 일차생산성 공장이다.
- ② 숲은 목재 등 다양한 물질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색, 예술적 상상력, 과학적 사고를 하게 한다.
- ③ 숲은 자연관찰을 통한 과학적 사고보다는 추상적, 주관적 사색을 위한 장소이다.
- ④ 인간은 인류 역사상 생존과 생활을 위해, 숲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만 하였다.

해설: 인류의 역사는 숲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용 및 보전하였으며, 자연관찰을 통한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색 및 예술적 상상력 등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한 목재 생산의 장소가 아니다. (교재 99쪽)

2. 다음 중 숲과 인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원시시대는 하천에서 채집과 유목생활을 하였으며, 숲에서 자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
- ② 인류는 정착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작 및 방목을 위하여 숲을 제거하지 않았다.
- ③ 인류는 숲에서 생존, 생활, 문화를 유지하거나 누렸다.
- ④ 숲을 남겨서 보전하면 문명이 멸망하였고, 숲을 파괴하면 문명이 발달하였다.

해설: 문명이 발달한 곳은 숲이 보전되었으며 숲이 파괴된 곳은 문명이 멸망하였다. 인류는 숲에서 생존, 생활을 유지하고 문화를 누렸다. 인류는 정착생활하는 과정에서 숲을 제거하여 경작 및 방목을 하였다. 원시시대에 숲과 하천 등에서 채집과 유목생활을 하였다. (교재 100쪽)

3. 다음 중 숲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 ① 한국인은 숲을 여가 및 놀이 공간 보다는 신성한 존재로만 여겨왔다.
- ② 인류는 나무보다 먼저 이 지구상에 출현했다.

- ③ 인류는 나무의 뿌리를 주로 이용한다.
- ④ 우리 전통문화에서 숲은 생활의 원동력이었다.

해설: 우리 전통문화에서 숲은 생활의 원동력으로 놀이 및 여가 등 공동체의 공간이기도 하였으며, 신성한 존재로 의식행위가 있었다. 나무가 먼저 지구상에 출현하였으나, 인류는 나무의 모든 부분을 이용한다. (교재 100쪽)

4. 우리의 숲과 전통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천마총의 천마도 장니는 자작나무 47겹의 수피로 만들어졌다.
- ② 천마총 금관의 곡옥은 오리나무의 나뭇잎을 상징한다.
- ③ 팔만대장경을 온전하게 보전하는데 옻나무가 이용되었다.
- ④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를 만들기 위해 뿔감으로 많은 소나무가 사용되었다.

해설: 우리 민족은 소나무를 십장생 중의 하나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은 소나무숲 등 무성한 숲이 없었으면 유지하기 힘든 문화자원이다. 또한,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직지심경 등 활자 문화자원은 산벚나무, 돌배나무 등과 옻나무의 칠이 있어서 보전가능하였다. 자작나무 47겹으로 만든 천마도 장니,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천마총 금관의 곡옥은 자작나무 나뭇잎 모양과 장식이 유사하다. (교재 101~102쪽)

5. 우리의 숲과 전통문화에 등장하는 다음 이야기는 어떤 생물과 관련이 있는가 ?

신라 금관총의 마구 장식은 이 곤충의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고 만들었다. 옥충(玉蟲)이라고도 불리웠다.

- ① 장수하늘소      ② 무당벌레      ③ 비단벌레      ④ 애반딧불이

해설: 신라 금관총의 마구 장식은 비단벌레의 껍질로 만든 것이다. (교재 101쪽)

6. 다음은 어떤 나무에 대한 설명인가?

우리나라에서 강직함을 상징하였으며, 서울 신림동과 경북 울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가 있으며 이 열매는 구황식물로도 이용하였고, 나무 줄기는 솥으로도 애용되었다.

- ① 참나무      ② 은행나무      ③ 소나무      ④ 자작나무

해설: 참나무는 우리 조상들이 도토리, 숯 등으로 이용하였다. (교재 106쪽)

7. 다음은 어떤 나무에 대한 설명인가?

우리나라에서 절개를 상징하였으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대문에 이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금줄을 만들기도 하였고, 궁중에서 관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이 나무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였다.

- ① 참나무      ② 은행나무      ③ 소나무      ④ 굴참나무

해설: 소나무는 우리 조상들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같이 한 나무로 인식하였다. (교재

103쪽)

8. 한국 마을숲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한국 마을숲은 일본의 사토야마와 유사한 것으로 마을 주민의 생계를 위해 관리하는 공동의 숲이다.
- ② 한국의 울퉁불퉁한 지형체계와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태적, 문화적 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 ③ 영국, 인도, 일본 등 세계 곳곳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숲은 다수 있으며 그러한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
- ④ 한국 마을숲의 전국 현황은 일제 강점기에 모두 파악되었으며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해설: 한국 마을숲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문화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외국과 유사하지만, 울퉁불퉁한 지형체계의 곳곳에 분포하며 생태적, 문화적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형 숲의 형태라는 점이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 108~109쪽)

9. 우리나라 마을숲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은?

- ① 우리나라 마을숲의 전수 조사는 일제 강점기 때 기록문화로 남겨져 조사 되었으며, 『조선의 입수』 라는 책에 실려 있다.
- ② 우리나라 마을숲은 일본 사토야마와 유사하게 마을 뒷산에서 자원을 이용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독특한 지형체계를 이용한 수구막이, 비보엽승 등의 형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 ③ 우리나라 마을숲은 역사 및 문화 유적으로서 현대적 관점에서 전승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부족하다.
- ④ 마을숲은 1970년대 이후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만, 이농인구의 증가 등 마을의 쇠락으로 마을숲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해설: 우리나라 마을숲은 역사 및 문화 유적이며, 공동체가 유지한다는 점에서 각박한 현대 도시 사회에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마을숲은 일본 사토야마와 다르게 독특한 지형체계를 이용하였으며, 수구막이 형태가 우세하며, 마을 뒷산도 마을숲의 한 유형이다. 마을숲은 1970년대 근대화 이후 이농 인구의 증가 등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어서 복원이 시급하며, 마을숲은 우리나라 고지도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교재 110~111)

10. 다음은 최명희 작가의 혼불의 본문 중 일부 이다. 이 설명 중 밑줄친 부분은 마을숲의 기능 중 어떠한 것을 설명한 것인가?

『그들을 맨 먼저 맞이하는 것은 마을 초입에, 성성한 바람 소리를 내며 검푸른 구름머리를 이루고 있는 술밭, 적송 숲이었다. (...) 이 술밭은 고리배미의 장관이요, 명물이었다. (...) 말밭굽 모양으로 휘어져 마을을 나직히 두르고 있는 동산이 점점 찾아내려 그저 밋밋한 언덕이 되다가 삼거리 모퉁이에 도달하는 맨 끝머리에, 무성한 적송 한 무리가 검푸른 머리를 구름같이 자욱하게 반공중에 드리운 채, 붉은 몸을 아득히 받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황당이 있었다. (...) 붉은 갑옷의 비늘이 저마다 숨결로 벌름거리고, 수십 마리 적송은 적룡(赤龍)의 관능으로 출렁거리려 피가 뒤설레는데, 제 몸의 그 숨결로 오히려 서늘한 바람을 삼아 사시사철 소슬하게 술술

을 채우는 이곳을 두고 고리배미 사람들은 그저“술 무테기”라고만 하였다.』

- ① 미기상 완화      ② 영양물질 공급      ③ 경관 보완      ④ 생물 서식지

해설: 마을을 가리려 고리배미 마을 입구에 있는 적송 숲의 소나무는 증산작용(숨결)과 차폐로, 여름엔 시원한 바람을 겨울엔 따뜻하게 마을을 감싸는 미기상 완화기능이 있는데, 최명희 작가는 이러한 기능을 자신의 시각에서 신명나게 표현한 것이다.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② 5. ③ 6 ① 7 ③ 8 ② 9. ④ 10. ①

## ■ 심화학습

### 1. 숲의 중요성

- 숲은 심리적 안정을 주어 질병의 치유제라고 인식할 수 있다. 숲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이 생물을 관찰하며 생명체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관찰 과정 자체가 정서 순화를 하는 과정이다.
- 인간은 숲에서 오랜시간 적응하여 살아 왔는데, 그 과정의 숲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문화를 생성하였다. 이 문화는 대대로 이어지며, 숲의 문화에서 행동하는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2. 숲과 인간

- 원시 시대 인간은 채집과 유목 생활을 하여 왔다. 이 당시 인간은 숲에서 나무를 이용하여 사냥 도구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 후, 정착의 과정에서 야생식물을 재배하여 경작하거나 야생동물을 사육화하여 방목하게 된다.
- 이 경작과 방목을 위해 숲에서 나무를 이용하는 도구가 다양하게 필요하였으며 정착 문화에서 집을 짓게 된다. 집 등 거주지의 뼈대로 나무를 사용하였고, 따뜻함을 위해 숲에서 땔감을 이용하였다.
- 결국 유목생활에서 정착 생활은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는 생활의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생존과 생활의 방식이 세대간에 전수되면서 문화가 형성된다. 따라서, 숲이 있는 곳에선 문명이 발달하지만, 숲이 없어지면 문명은 사라집니다.
- 여기에서 문화와 문명은 어떤 차이 일까요?
- 어떤 지역과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문명의 차이도 있을까요? 각자 공부해봅시다.

### 3. 숲과 전통문화

- 숲은 살아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를 상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 영화 아바타 또는 토토로를 보면 모든 숲과 자연은 살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영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에선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숲과 자연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공통된 생각이 있어서 아닐까요?
- 마찬가지로 신화와 전설이 있는 숲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을 마을마다 전설이 있는 곳도 있고, 단군 신화 등 신화가 살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 또한, 숲에는 문학과 예술이 남아 있습니다. 숲에서 갓는 시 낭송, 그림 그리기 대회는 우리 조상들이 숲에서 풍류를 즐기며 글과 그림을 남긴 문화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군신화에서 단은 박달나무를 상징하고 특정 나무를 매개체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려는 문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숲과 전통문화

- 일상적인 의상과 공예품에서 나무와 숲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신라 금관총의 마구 장식은 옥충이라고 하는 비단벌레의 아름다운 빛깔을 이용하여 나타냈다.
- 신라 천마총 천마도의 장니는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금관의 곡옥은 자작나무 잎을 상징하며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 뿐만 아니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에 소나무, 두루미 등의 문양이 있는 것도 있다. 실제로 소나무와 두루미는 생태적으로 맞지 않지만, 나무와 동물을 상징성으로 이해하여 무병장수 등 기원의 의미에서 십장생을 넣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팔만대장경판의 산벚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를 사용한 점과 옷칠을 이용하여 방부를 막았는데 점을 보면, 그 당시 나무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를 알 수 있다.

#### 5. 나무와 인간

- 나무와 인간을 알아보자. 소나무는 곧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의 술가지를 쏘는다.
- 조선시대 왕족의 관을 사용하기 위해 황장봉산으로 정한 곳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무덤 주변에도 소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이 소나무는 흔히 도래솔이라고 부른다. 즉, 소나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하고 사후에도 무덤 주변을 지켜준다.
-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이다. 곧게 자라면 목재로 사용할 수 있고, 굽어 자라면 생각을 깊게 한다. 흔히 어떤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뛰어나며 문화 집단의 정체성을 특성화하는 생물 종을 문화적 중추종(cultural keystone species)라고 한다.

#### 6. 나무와 인간

- 참나무는 강직함을 나타냈고, 참나무 중 경북 울진과 서울 신림동의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구황식물로 이용하였는데, 대개 봄에 비가 많이 오면 논농사는 잘 되지만, 가물면 도토리 농사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 또한 도토리 나무는 어느 정도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근 야산에서 흔하게 식재되어 도토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솥가마에서 생산된 참나무 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 7. 숲과 마을

- 마을숲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의 짜임새를 이용하여 홍수와 바람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숲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을숲은 백두대간의 산줄기에서 뻗은 들과 굽어치는 물길 사이 사이에 포도 송이의 포도 알처럼 앉아 있다.
- 마을숲의 유형은 동구숲, 하안숲, 해안숲, 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동구숲은 동구(洞口), 마을 입구에 위치한 숲이다. 하안숲은 하천 주변에 위치한 숲이며, 해안숲은 해안가에서 방풍의 목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 피는 주로 한강, 금강 하구 지역에서 구릉성 산지가 남아 있는 지역으로 홍수 범람이 있을 경우, 피수대(避水臺)로서 역할이 있는 지역이다. 그 중 마을의 토속신앙과 어울려 주민과의 관계가 돈독한 숲은 비보숲이라 한다.

## 8. 외국의 마을숲

- 일본 오키나와의 포호림(抱護林), 사토야마(里山), 중국 하천숲, 인도의 sacred groves, 영국의 hedgerows 등이 마을숲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공통점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종교적 신앙 또는 신념이 있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한국 마을숲의 특성은 골짜기 마다 마을숲이 생활림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지형적 특성을 배려했다는 점이 독특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9. 마을숲의 기능

- 마을숲의 미기상을 완화하며 영양물질의 받이대로서 기능을 한다. 일부 마을숲은 연못과 둠벙을 가지거나 하천과 가까이 있을 경우 양서류와 수서생물은 올챙이 또는 유생 시기를 물 속에서 보내고 물으로 이동하는데, 이 때 마을숲은 은신처, 먹이자원을 제공해 준다.
- 이러한 점에서 경관 보완(landscape complementation)효과가 나타난다. 즉, 물과 물이라는 두 경관에서 생활사를 유지하는 생물은 마을숲에서 경관 보완 효과를 얻는다. 원앙, 소쩍새, 솔부엉이의 번식지로서 역할을 하는 마을숲은 큰 나무가 남아 있고 사람들이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10. 마을숲의 변화

- 그렇지만, 마을길이 넓어지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농 인구가 증가하였고 도시 확산으로 농촌은 점점 줄어든다. 그 과정에서 마을 입구에 위치한 마을숲은 영향을 받기 쉽다.
- 또한, 하천숲은 콘크리트와 하폭 확장에 따라 소실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마을 감소는 마을 공동체 문화의 소실에 기인한다. 또한, 마을숲, 돌탑 등 형상물에 대한 고사 및 타부(taboo)의식이 약화되는 것도 관여한다.

## 11. 마을숲의 현대적 의미

- 마을숲은 점점 없어지는 유물이 아니라, 다시 도시로 이끌어 내야 할 자산이다. 아파트가 다수 있는 도시에서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곳은 만남의 장소일 수 있다.
- 마을숲의 수종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를 보면 경북 회화나무, 남해안 푸조나무, 멸구슬나무, 개서어나무 등 그 지역의 지역성이 반영되어 있다. 가시가 있는 나무는 울타리 형태로 식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현대 아파트 숲 또는 도시숲에 적용할 수 있다. 느티나무, 팽나무, 상수리나무를 식재할 수 있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도심 공간에 숲과 주민이 만나는 장소를 만들 수 있다.

## 12. 미래의숲과 자아실현

- 프랑스 작가 샤토브리앙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고 하였다. 숲은 문명을 낳았지만, 문명은 숲을 버릴 수도 살릴 수도 있다.
- 우리의 역할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치산 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강의 내용에서 보듯이 험벗은 산을 녹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숲의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숲은 자아실현 욕구의 원천이며 질병을 치유하는 병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 용어해설

- 마을숲 :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의 짜임새를 이용하여 홍수와 바람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숲

- 전통 문화: 한 민족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에서 스며든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합하여 나타내며,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을 포함한다.
-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가 인간의 삶에 제공하는 편익(benefits)과 기능을 말하며, 생태계 서비스는 크게 공급 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와 조절 서비스(regulating services), 문화적 서비스(cultural services), 지탱 서비스(supporting services)로 나눈다
- 비보엽승(裨補厭勝): 마을 주변에 바위, 뽕죽하거나 굽어치는 산이 있을 경우, 마을에 나쁜 기운을 준다고 인지하여 이러한 기운을 누르거나 차폐하기 위해 숲, 돌거북, 돌탑을 조성할 경우 조성된 것의 기능을 이르는 말
- 비보숲(裨補숲)은 우리나라 마을숲이 지형적 결함과 혹독한 기후에 대비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한 것이 계속 이어온 독특한 형태를 일컬으며, 비보의 성격이 강하여 이러한 숲으로도 불림.